

■ 학회 동정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2018년 하반기 소식

김 철 수

1. 2018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제임스조이스 세션으로 참가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회장 길혜령 영남대 교수)는 2018년 12월 13일(목)~15일(토)까지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2018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단독 세션을 꾸려 참가하였다.

“Encounters with the Posthuman: Materiality, Vitality, Narrativity”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개최된 학술대회 일정 중 제임스조이스학회는 12월 15일(토) 오후 2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백주년기념관 7층 701-B 세미나실에서 십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늘 그렇듯이 학기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인데다가 시간적인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개최된 겨울학회는 참석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세 명의 발표자가 각각 자신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에 이어 열띤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총무인 이영심 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진행된 논문 발표회에서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경숙 교수(안양대)는 「‘셋! 조심! 에코랜드’: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

탈식민적 에코로 다시 읽기」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정복자의 언어를 다성적으로 해체하여 탈식민적 메아리를 만들어 낸 조이스의 언어실험을 흥미롭게 파헤쳤다. 다음으로는 김철수 교수(조선대)가 「『경주가 끝난 뒤』, 『장자』의 우화와 함께

2018 ELLAK International Conference

"ENCOUNTERS WITH THE POSTHUMAN: MATERIALITY, VITALITY, NARRATIVITY"

Centennial Hal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December 13 (Thursday) – 15 (Saturday), 2018

Keynote Speakers

- N. Katherine Hayes (Duke University, USA), Rethinking the Posthuman: The Role of Technology
- Timothy Morton (Rice University, USA), Pac-Man or Chameleon? What Are These Humans We Speak Of?
- Wendy Hui Kyong Chan (Simon Fraser University, Canada), Algorithmic Reading, or How Discrimination Became Recognition

Invited Speakers

Special Session 1: "Posthuman Media"

- Mike Figgis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 UK), Posthuman Cinema: *Timecode* Live Remix & Discussion

Special Session 2: "Theorizing the Posthuman"

- Tom Cohen (SUNY, USA), Are We Still Even in the "Anthropocene" (or Did It Ever Exist)? A Reading of Spielberg's *A.I. Artificial Intelligence*
- Christophe Thévoz (Kyushu University, Japan), Deformation as Destiny: *Made in Abyss* and *Kawaii Consumption*
- Jonggab Kim (Kookjaik University, Korea), The Problem of Agency in the Anthropocene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 중 하나인 「경주가 끝난 뒤」에 나타난 마비의 대물림 현상을 『장자』의 세 우화와 비교하여 읽음으로써, 조이스의 작품에 대한 동양철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최석무 교수(고려대)는 「『진흙』에 나타난 아일랜드 헬러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헬러윈이 아닌 아일랜드의 헬러윈을 소개하고, 그 풍습의 변천사가 내포한 의

미를 꼼꼼하고 흥미롭게 전개해 주었다.

세 사람의 발제가 끝난 후에 장성진 교수(중앙대)와 이영규 교수(연세대), 그리고 손승희 교수(안양대)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고, 이후 함께 참석한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그간 익숙해져 있던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해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비록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들이 “포스트휴먼과의 조우”라는 영어영문학회에서 상정한 전체 주제와 썩 어울리는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익숙한 것들로부터 받는 낯선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아전인수’ 식이나마 다소 간의 동질성을 느껴 본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2019년 5월 18일에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될 “Joyce and Technological Culture”라는 제목의 국제학회를 기대하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 *Finnegans Wake* 독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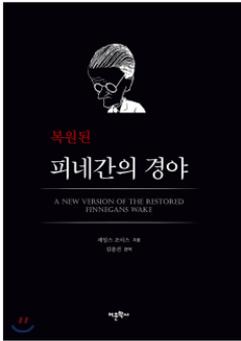
2016년 1월 22일(금)에 시작된 *Finnegans Wake* 독회는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상반기(5월/6월)와 한국영어영문학회 연찬회가 실시되는 하반기 각 한 달(11월/12월)을 제외하고 일 년에 10회 정도 진행되어 왔다. 2017년 세종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송실대로 자리를 옮긴 독회는 전은경 교수와 김길

중 교수의 탁월한 강의로 그 흥미를 더해갔다. 그 후 2018년 6월에 김경숙 교수(안양대)가 제 1권의 마지막 장인 ALP를 섬세한 탐구력과 재치 넘치는 강의로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송실대의 독회 장소 섭외에 큰 힘이 되었던 전은경 교수의 정년퇴직으로 말미암아 다시 장소를 중앙대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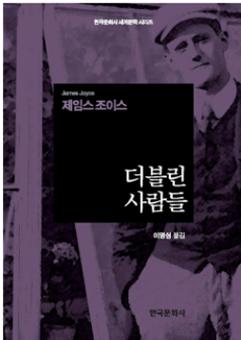
작품의 특성상 전공자가 그리 많지 않고, 너무 난해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독회의 대중성이 한계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율리시스』 독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회원들의 의지가 결집되어 향후 같은 시간에 『율리시스』를 다시 읽기로 하였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월경에 있을 국제학술대회와 연말에 있을 한국영어영문학회 연찬회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방학 중에는 셋째 주 금요일) 독회는 계속될 예정이다.

평균 10~15 명 정도 참석하는 독회는 Audio를 통한 작품 Listening 후에 발제를 맡은 회원의 발제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 사이의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방학 중인 7월과 8월에는 냉방시설이 중단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셋째 주 금요일 오후 두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조이스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독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다음 모임 2019년 1월 18일(금))

3. 회원동정



■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를 창립하고 학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아끼지 않았던 김종건 전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월 7일 롯데장학재단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1회 롯데출판문화대상”에서 본상 도서번역출판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식을 줄 모르는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조이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모든 후학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고 있다.



■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의 현 총무이사인 이영심 교수(한국외국어대)가 올해 11월 10일에 『더블린 사람들』을 번역 출간하였다. 지난 해 3월에 번역 출간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이어 두 번째로 조이스의 작품을 번역한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인 박태원과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필자 소개

김경숙

University of Utah에서 “Joyce’s Alternative Historiographies: Renarrating the Nation and History”로 박사학위 취득.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조이스를 비롯한 정전 작가의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연구에 관심이 있음. 현재 안양대학교 영문과에 재직 중. jjoyce10@anyang.ac.kr

김철수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영문학 석사. 조선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James Joyce의 소설에 나타난 화해의 추구: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과 *Ulysses*를 중심으로』. 저서: 『사랑, 그 낮은 이름』(한국문단, 2014), 『사계: 춘,하,추,동』(한국문단: 2015), 『영어화자를 위한 병원한국어』(역락, 2014). 현재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에 재직 중. charles@chosun.ac.kr

이강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제임스 조이스의 스타일 연구: 바흐친의 미학이론을 중심으로”. 『매저키즘』(인간사랑), 『마조히즘: 권력의 예술』(동문선), 『더블린 사람들』(열린책들) 등 번역. 현재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재직 중. leekh@seowon.ac.kr

이영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취득.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학위 논문은 *The Narrative of Repetition: James Joyce’s Ulysses*. 역서로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한국문화사), 『더블린 사람들』(한국문화사)이 있다. 관심분야는 서술기법과 서사, 탈식민주의, 모더니즘. youngbird86@naver.com

이주리

Texas A&M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현대영국소설연구로 박사 학위 취득. 현재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직중. 최근 논문으로는 *Ariel: A Review of International English Literature*(47.3)에서 출판된 “Invoking Joyce, Avoiding Imitation: Junot Diaz’s Portrait of Nerds in *The Brief Wondrous Life of Oscar Wao*”(2016) 등이 있음. 관심분야는 20-21세기 영미소설과 영국 모더니즘 문학. joorilee00@gmail.com

최석무

University College Dublin에서 Professor Declan Kiberd의 지도하에 *James Joyce and Deagnlization: A Postcolonial Study of Ulysses*로 박사학위 취득(1998년). 충북대학교 영문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교수로 재직중. 주요 관심사는 제임스 조이스 및 아일랜드 작가 연구, 탈식민주의 작가 연구, Critical Literacy와 아동문학 연구 등. smchoi@korea.ac.kr